

“여야 합의 존중” 속뜻은 ‘특검거부 특위수용’ … 국회에 공 넘기기

박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수용을 시사하고 국회 존중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진전된 태도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대한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말미에 두 사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고 말했다.

애초 지난날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발언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을,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었지만 것에 비해 의견상으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특검은 거부하고, 특위는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민주당 지도부에게 물밑으로 제시했던 협상카드이기도 하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특정한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고 원칙적인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정치권의 전반적 분위기는 박 의원의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늦게 새누리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특위는 받아들일 것, 특검은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

예산안 통과 절박감…野에 화해의 메시지 매년 정기국회 연설 ‘새 정치문화’ 의지도 與 “국정원 개혁 특위 받아들인다” 화답

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 일정부분 양보하며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 대부분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신속히 통과되는 것이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그 양보의 대가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여단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이런 ‘현실적 압박’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의

‘소통 부재’ 지적을 염두에 둔 듯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저와 정부는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검과 특위를 모두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새누리당이 화답을 해야 박 대통령의 발언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만큼 이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얼마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정국 파행을 막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는다

도시·읍면·마을 유기적 연계

■ 전남지역 행복생활권 구상안

기초인프라 등 서비스 누리게

전남도가 순천·여수·광양을 중추도시권으로 묶는 등 정부의 지역발전 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 구상안을 내놴다.

전남도는 18일 전남발전연구원 등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실무추진단 회의를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크게 ▲농어촌권(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군) ▲도농연계권(10만~5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 ▲중추도시권(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 도시와 인근 시·군) 등으로 설정된다.

이날 전남도의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공개된 구상안은 중추도시권 2개, 농촌생활권 4개로 구성됐다.



중추도시권은 ▲순천·여수·광양·보성·고흥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등 2개 권역이며, 순천·여수·광양(중추)과 보성·고흥(농촌)을 나누거나 목포·무안·신안(도농, 중추)과 해남·진도(농촌)로 구분하는 안도 제시됐다.

또 농촌생활권은 ▲담양·곡성·구례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영암·강진·장흥·완도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안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같은 생활권에 포함되기를 희망

하는 지역을 조사해 만들어졌다. 또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권,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내력, 주민인식 등도 고려됐다.

한편 이들 시·군이 이 같은 계획에 찬성해야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다. 개별 지자체가 같은 생활권에 들어갈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자체적인 생활권 구성안을 마련한 뒤 광역지자체와 지방위의 검토·자문을 거쳐 생활권이 최종 확정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수치는 새누리당, 앉아 있는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를 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시정연설 35차례 박수 받았는데…

與는 ‘열광’ … 野는 ‘냉랭’

진보당은 ‘마스크’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 과정에는 35차례나 박수를 받았으나 야당의원들로부터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깃을 세운 남색 재킷에 브로치를 달고 바지 정장 차림을 한 박 대통령은 연설 예정시간(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 일찍 국회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본정 건물 의원 출입로

앞에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으며 의장 집견실로 이동해 주요 인사들과 환담했다.

환담장에는 강 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가 늦

게 끝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연단에 서서 인사말을 시작한 후부터 29분의 연설 동안 입장과 퇴장할 때를 포함해 모두 35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연단까지 이어진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자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으며, 박 대통령은 환한 웃음과 가벼운 목례로 화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차례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46회)와 ‘국민’(44회)이었다. 여기에 ‘행복’(12회), ‘국가’(9회)도 비교적 자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연단 양 옆의 프론트를 이용해 연설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수시로 박수를 보내 공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는 했지만 박수까지 치지는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대표와 대선 당시 경쟁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연설을 경청했다. 다만, 10명에 가까운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일어나서 않고, 퇴장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경우 앉은 채로 박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민주’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김선동 의원은 ‘정당 해산 철회’라는 팻말을 드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1위 이탈리아 | 아미티 오픈카 입주
2위 스위스 | 알프스 산악자전거
3위 크로아티아 | 아드리아해 요트 항해
4위 이탈리아 | 베니스 곤돌라
5위 스위스 | 루프카페스트 드라이브
6위 체코 | 프라하 스카터 투어
7위 헝가리 | 야간 침대 열차
8위 스위스 | 알프스 산악 열차
9위 크로아티아 | 해안마을 캠프카 여행
10위 헝가리 | 부다페스트 트램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당신이 뽑은 유럽여행 랭킹소

진행중인 다른 부문 투표에도 참여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유럽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2013.09.23~12.22)
travel.koreanair.com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웬만큼 꼬였어야 풀리지, 원 ...